

# 姜瑋의 東文字母分解와 擬定國文字母分解의 別書 考證

權 在 善

## <目 次>

- |                      |                  |
|----------------------|------------------|
| I. 序                 | 分解와의 關係          |
| II. 內容의 差異           | V. 두 책의 完成年代와 作者 |
| III. 擬定國文字母分解의 內容 확인 | VI. 結            |
| IV. 東文字母分解와 擬定國文字母   |                  |

## I. 序

姜瑋의 國語學 著書로 東文字母分解가 전하고 있는데, 또 姜瑋의 國語學 著書로 擬定國文字母分解를 들고 있는 學者도 있다. 이 東文字母分解와 擬定國文字母分解는 別書가 아니고 같은 책의 다른 명칭으로 보고 있다.

「東文字母分解」는 金允經이 그의 朝鮮文字及語學史에서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國文研究所 報告書에서 魚允迪은 姜瑋의 國語學 著書로 「擬定國文字母分解」를 들었으며, 小倉進平은 그의 朝鮮語學史에서 역시 姜瑋의 國語學 著書로 「擬定國文字母分解」를 들고 있다. 그리고, 周時經은 그의 國文研究所 報告書에서 「國文字母分解」라 하고 있다. 이름은 비록 틀리지만 내용은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모두 筆寫本으로 전한 것인데, 현재, 이들 모두가 전하지 않지만 그들이 본 筆寫本에는 각각 그런 명칭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또 이 著書가 완성된 연대도 高宗六年(1869)와 高宗元年(1884)으로 다르게 말하고 있다. 그들이 본 寫本의 年代 기재가 다르기 때문이겠다.

그런데, 筆者는 東文字母分解와 擬定國文字母分解가 같은 책의 다른 명칭이 아니라 다른 책임을 考證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東文字母分解」가 있고 그와는 다른 「擬定國文字母分解」가 따로 있다고 본다. 이 둘은 얼핏 보면 같은 책으로 보이지만 담긴 見解가 아주 다른 것으로 책 이름이 다를

뿐 아니라 완성 연대도 다르고 編者도 다른 사람으로 추측된다.

## II. 내용의 차이

金允經이 그의 朝鮮文字及語學史에서 소개한 東文字母分解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내용이 다른, 비슷한 편재의 두 편의 글이 습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金允經의 東文字母分解의 내용을 標題 위주로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東文三十五字母圖

中聲十一字

初聲十六字(反切表)

終聲八字

東文三十五字母分解

初聲十六

(分類와 象形說)

初聲十六音

中聲十一音

終聲八音

} (한글로 表音)

初中二聲合音

初中終三聲合音一

初中終三聲合音二

初中終三聲合音三

初中終三聲合音四

初中終三聲合音五

初中終三聲合音六

初中終三聲合音七

初中終三聲合音八

初中終合音成字後與中聲合音

四合音

五合音

六合音

} (合音 보기)  
(字數)

東文集韻九十九韻(華音韻의 한글 기호)

辨異(보기, 齒音과 舌音의 分類)

辨訛(설명)

東文三十七字母分解

初聲十八 }  
 中聲十一 } 한글로 表音  
 終聲八 }

初聲中聲二合音  
 初聲中聲終聲三合音  
 初聲中聲中聲三合音  
 初聲中聲中聲終聲四合音  
 初聲中聲中聲終聲終聲五合音  
 初聲中聲中聲終聲終聲六合音  
 初聲中聲中聲終聲終聲五合音

} (字數  
 合音 보기)

初中終三聲成字圖

(中 聲)  
 (初 聲)  
 (終 聲)

「東文三十七字母分解」 왼쪽에 길게 그은 줄은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그은 줄이다. 그 줄을 경계로 왼쪽은 「35字母體系」의 論說이고 그 아래쪽은 「37字母體系」의 論說로 되어 그 내용이 확연히 다르다. 한글을 35字母體系로 보는 것과 37字母體系로 보는 것은 相反된 견해이니 같은 著書에 論點이 다른 두 편의 글을 함께 실지는 않을 것이다. 다른 著書로 된 것을 合本한 것을 내용상으로 확인하겠다. 그 뿐 아니라 그 編裁로 봐도 編裁가 매우 비슷해서 서로 대응되는 별도의 독립된 두 편임을 확인할 수 있다. 標題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서로 대응하는 것끼리 같은 숫자를 붙인다.

(35字母體系)

(一) 東文三十五字母圖

中聲十一字 }  
 初聲十六字 } (글자 提示)  
 終聲八字 }

(二) 東文三十五字母分解

(A) 初聲十六(分類와 象形說)

(37字母體系)

(2) 東文三十七字母分解

(b) 初聲十八 }  
 中聲十一 } 한글로 表音  
 終聲八 }

(c) 初聲中聲二合音

.....  
 .....  
 初聲中聲中聲終聲終聲五合音

} (字數  
 合音 보기)

4 嶺南語文學(第13輯)

(B) 初聲十六音 }  
 中聲十一音 } (한글로 表音) (1) 初中聲三音成字圖  
 終聲八音 }

(C) 初中二聲合音 } (中聲)  
 ..... } (初聲) } (글자 提示)  
 ..... } (合音 보기) } (分類)  
 六合音 } (終聲)

(三) 東文集韻

(四) 辨異  
 辨訛

서로 대응되는 것끼리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35字母體系)	(37字母體系)
(一) 東文三十五字每圖	(1) 初中終三音成字圖
(二) 東文三十五字母分解	(2) 東文三十七字母分解
(A) 初聲十六(象形說)	(a) <없음>
(B) 初聲十六音	(b) 初聲十八
中聲十一音	中聲十一
終聲八音	終聲八
(C) 初中二聲合音	(c) 初聲中聲二合音
.....	.....
.....	.....

(三) 東文集韻

(四) 辨異  
 辨訛

「東文集韻」은 國語의 字素體系나 音韻體系의 분석이 아니고 華音記號로서 의 華音 韻의 表記字이므로 東文體系로서는 제외될 것이며 辨異와 辨訛는 37字母體系에서는 거의 필요 없는 설명이니 37字母體系의 標題는 그것만으로 완벽한 것이다. 단 35字母體系와 대응시켜 보면 (二) 東文三十五字母分解의 (A) 初聲十六(象形說)에 대응되는 것이 빠졌을 뿐이다.

「東文三十五字母體系」와 「東文三十七字母體系」는 口蓋音化와 單母音化를 인정하느냐 않느냐에서 서로 다른 체계가 이루어진 것이다. 東文 37字母體系는 속간에 傳承하는 反切體系에서 口蓋音化를 인정하여, 口蓋音化를 인정

하는 경우 불필요하게 되는 글자를 反切表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口蓋音化와 單母音化를 인정하면 다음과 같은 글자들은 같은 소리로 된다. 곧 괄호로 친 소리로 난다.

다자자	(자)
더저겨	(저)
도조조	(조)
듀주쥬	(주)
디지	(지)
타차차	(차)
터쳐쳐	(쳐)
토초초	(초)
튜추쥬	(추)
티치	(치)

필요없는 글자를 줄이기 위해 反切表에서 「자」行과 「차」行을 줄이고 初聲 글자 「스」과 「츠」을 줄이었던 것이다. 이 소리들을 「다」行과 「타」行의 口蓋音化한 글자로서 나타내었다. 곧 「자저조쥬」와 「차쳐초쥬」는 單母音化하여 실제 「자저조주」와 「차쳐초추」로 나뉘고 없애고 「자저조주지」와 「차쳐초추치」는 「다더도두디」와 「타터토티티」가 口蓋音化가 되면 같은 소리로 그것들로 대신하면 反切表에서 「자, 차」의 두 줄을 감할 수 있고 初聲 글자 「스, 츠」을 덜 수 있어 字素體系를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개혁안이 35字母體系이고 전통적으로 써오던 37字母體系를 그대로 쓰는 것이 37字母體系이다.

辨異와 辨訛는 口蓋音化와 잃어진 「·」中聲등에 관한 설명으로 속간에 전승되고 있는 反切體系를 그대로 쓰면 별로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金允經이 소개한 東文字母分解에 실린 35字母體系와 37字母體系는 서로 다른 내용을 갖고 서로 다른 독립된 편지의 글로서 한 著書의 글로 볼 수 없고 다른 著書로 된 것을 合本하여 같은 東文字母分解라는 이름으로 하여 合本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설명의 편의상 金允經이 소개한 東文字母分解의 글 가운데 35字母體系에 관한 것을 35字母體系編, 37字母體系에 관한 글을 37字母體系編이라고 이르기로 한다.



本書에서는 子母音의 名稱을 作함에만 ㅇ을 用하니 此는 아직 此에만 從俗할 뿐이요 ㅇ은 實로 不用하였으며 ㅇㅁㅂ字가 無하고 脣輕音이 無하고 齒音에 齶頭正齒의 別이 無함

(李基文, 開化期の 國文研究, 國文研究所 報告書 pp. 257~258)

위의 周時經이 소개한 國文字母分解에는 37字母體系임을 보이고 있다. 이 「國文字母分解」는 그 명칭으로 보아 擬定國文字母分解의 略稱이거나 그 異本이겠다.

小倉進平의 擬定國文字母分解와 周時經의 國文字母分解는 金允經의 東文字母分解의 37字母體系編과 그 字母가 일치하고 있다.

35字母體系編(初聲 16)

ㅇ ㅎ ㄱ ㅋ ㅋ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37字母體系編(初聲 18)

ㅇ ㅎ ㄱ ㅋ ㅋ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35字母體系編에서는 口蓋音化와 單母音化를 인정하여 「자, 차」行과 初聲 「스, 츠」를 덜어 버렸으나 37字母體系編에서는 그것을 덜지 아니했으므로 初聲 「스, 츠」이 있다. 小倉進平이 소개한 擬定國文字母分解의 象形說에 제시된 初聲은 「스, 츠」이 있어 18初聲體系이다.

金允經이 소개한 35字母體系編의 象形說에는 다음 처럼 「스, 츠」를 덜어 버린 16初聲體系이다.

初聲十六

喉音二 ㅇ ㅎ ㅇ 象喉形 | 象出鼻

舌本音三 ㄱ ㅋ ㅍ | 象立舌閉喉蓄氣 一象偃舌開喉出聲

舌上音二 ㅅ ㅆ 象舌脊上出聲

舌尖音四 ㄴ ㄷ ㅌ ㅍ 象舌尖抵腭離腭出聲

轉舌音一 ㄹ 象舌形屈曲閉鼻轉舌即得此聲

이것으로 小倉進平이 소개한 擬定國文字母分解는 18初聲體系를 가진 37字母體系編과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35字母體系編이 원래의 「東文字母分解」이며, 37字母體系編이 擬定國文字母分解임을 알 수 있고, 金允經이, 그의 朝鮮文字及語學史에서 소개한 「東文字母分解」는 「擬定國文字母分解」를 台本하여 東文字母分解로 하여 35字母體系編과 37字母體系編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거기서 37字母體系編에는 象形說을 덜어 버린 것

은 35字母體系의 象形說과 동일한 것이어서 동일한 설명이 重出하기 때문에 덜어 버린 것으로 보인다. 金允經이 소개한 東文字母分解는 東文字母分解와 擬定國文字母分解를 단순히 合本하는데 그치지 않고 덜고 加筆하여 한 著書의 體裁로 변화시켰다. 37字母體系에서 象形說을 덜어 같은 설명의 重出을 막은 것이며, 擬定國文字母分解란 말을 빼 버리고 「東文三十七字母分解」란 標題로 바꾼 것이 그러한 점이다. 이것은, 원래는 「國文三十七字母分解」라 되었을 것인데, 合本하면서 加筆하여 「國文」을 「東文」으로 고친 것으로 보인다.

#### IV. 東文字母分解와 擬定國文字母分解와의 관계

擬定國文字母分解는 그 字母體系가 東文字母分解에 비해서 傳統的인, 속간의 反切體系에 따르고 있으나, 俗用 反切體系를 그대로 받아 들인 것이 아니고 東文字母分解의 文字와 音韻 見解의 범위 안에서 37字母體系로 확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東文字母分解의 견해와는 일치하고 속용 反切體系와는 다른 점이 있는데, 그러한 것으로 다음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 (1) 雙聲 글자 씀

雙聲이라 하여 「ㄱㅈㅈㅈ」을 쓰면서 속간에서 쓰는 된시옷 글자를 잘못이라 하였다.

初聲之ㄱㅈㅈㅈ四音 宮中 謂之雙聲 經書諺解 亦多有之 而今行文 改從入傍 訛也  
(東文字母分解, 辨訛)

이 雙聲 글자는 東文字母分解에서 쓰였을 뿐 아니라 擬定國文字母分解에서도 역시 쓰였다.

##### (2) 「ㅇ」글자 씀

東文字母分解에서, 속간에서 「ㅇ」으로 쓰는 初聲字를 「ㅇ」으로 쓰고 그 象形說明도 다음 처럼 하여 「ㅇ」에 「|」가 붙은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喉音 ㅇㅎ

ㅇ象喉形 |象出氣(東文字母分解, 東文三十五字母分解)

이러한 점은 擬定國文字母分解에서도 마찬가지다. 金允經이 소개한 東文



字母分解의 37字母體系編의 글자 모양이 그러할 뿐만 아니라 小倉進平이 소개한 擬定國文字母分解에서도 그러하다.

○象喉形 ㅎㅇ ○象喉形 | 象出氣 (小倉進平, 朝鮮語學史, p.153)

첫머리의 「○象喉形」의 「○」은 初聲字로 제시한 것이 아니다. 「○」과 「ㅇ」을 따로 쓴 것은 아니다. 단 「○」꼴의 制字原理를 보인 것 뿐이다. 小倉進平이 소개한 擬定國文字母分解의 象形설명에서 제시한 글자는 다음과 같다.

ㅎㅇ |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ㆁ

### (3) 「ㄺ」字 뺐

東文字母分解의 字素體系에서 「ㄺ」字가 빠졌는데, 그 까닭은 알 수 없으나 의도적인 것 같다. 37字母體系編에서도 뺐고 또한 35字母體系編에서도 뺐다.

### (4) 反切表의 初聲 순위

東文字母分解의 35字母體系編의 東文三十五字母圖의 反切表 위에 제시한 初聲의 순위는 五音의 같은 類를 함께 모은 喉牙齒舌唇의 순위인데, 37字母體系編의 初中終三音成字圖의 初聲 순위도 五音의 같은 類를 함께 모은 喉牙齒舌唇의 순위로 되어 꼭 같다.

위와 같은 특징은 속용 反切體系에서 보다 訓民正音體系에 더 영향을 입고 있는데, 37字母體系인 擬定國文字母分解도 꼭 같은 견해에 입각하고 있다.

金允經이 소개한 東文字母分解의 35字母體系編과 37字母體系編은 編裁가 서로 같음은 앞에서 언급했다. 이들은 단순히 編裁가 같은 것 이상으로, 35字母體系와 37字母體系인 점 외에는 그 내용이 전혀 동일한 것이다.

金允經이 소개한 東文字母分解의 35字母體系編의 「東文三十五字母圖」와 東文三十五字母分解의 「初聲十六」은 37字母體系編의 「初中終三音成字圖」와 다르다.

(35字母體系編)

東文三十五字母圖

中聲十一字

10 嶺南語文學(第13輯)

ㅏㅑㅓㅕㅗㅛㅜㅝㅞㅟㅠㅡㅢㅣㅤㅥㅦㅧㅨㅩㅪㅫㅬㅭㅮㅯㅰㅱㅲㅳㅴㅵㅶㅷㅸㅹㅺㅻㅼㅽㅾㅿㅽㅿㅇ

- ㅇ ㆁ ㆁ
- ㅎ ㆁ 하하
- ㄱ ㆁ 가가
- 初 ㆁ ㆁ 까까
- ㅋ ㆁ 카카
- 聲 ㆁ ㆁ 사사
- ㅆ ㆁ 싸싸
- ㄴ ㆁ 나나
- ㅌ ㆁ 다다
- ㅍ ㆁ 파파
- 六 ㆁ ㆁ 타타
- ㄷ ㆁ 라라
- 字 ㆁ ㆁ 마마
- ㅂ ㆁ 바바
- ㅃ ㆁ 빠빠
- ㅍ ㆁ 파파

ㅏ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기득 니은 디을 리을 미음 비음 시의 이흥  
 終聲八字

東文三十五字母分解

初聲十六

喉音二 ㆁ ㆁ

○象喉形 ㆁ ㆁ 象出氣

舌本音三 ㆁ ㆁ ㆁ

ㆁ ㆁ ㆁ 象立舌閉喉蓄氣 ㆁ ㆁ ㆁ 象偃舌開喉出聲

舌上音二 ㆁ ㆁ

象舌脊上出聲

舌尖音四 ㆁ ㆁ ㆁ ㆁ

象舌尖抵腭離腭出聲

轉舌音一 ㆁ

象舌形屈曲閉鼻轉舌即得此聲

唇音四 ㆁ ㆁ ㆁ ㆁ

象閉唇蓄氣開唇出聲

(37字母體系編)

初中終三音成字圖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ㆍ

ㅇ } 喉音二

ㄱ }  
 ㅋ } 舌本音三

ㅅ }  
 ㅆ } 舌上音四

ㄹ 轉舌音一

ㅁ }  
 ㅂ }  
 ㅃ }  
 ㅍ } 唇音四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ㆍ

서로 비교해 보면 35字母體系編에 있는 字母에 대한 「한글 表音」과 「反切表」, 「象形說明」이 37字母體系에서는 없다. 이것들이 빠진 것은 合本을 하고 보니 한 책에서 重複되기 때문에 뺀 것으로 보인다. 37字母體系編의 「初中終三音成字圖」란 標題의 뜻으로 보아 원래 「成字圖」(反切表)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으며, 象形說明은 小倉進平이 소개한 擬定國文字母分解에 인용한 象形說明을 합치면 35字母體系編의 東文三十五字母分解의 「初編十六」의 설명과 꼭 같아진다.

ㅇ } 喉音二

(37字母體系編)

○象喉形 ㅎ ㅇ ○象喉形 | 象出氣 (小倉이 소개한 擬定國文字母分解)

이 둘을 합쳐서 35字母體系編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喉音 = ㅇ ㅎ ○象喉形 | 象出氣 (35字母體系編)

喉音 = ㅇ ㅎ ○象喉形 | 象出氣 (둘을 합친 것)

다소의 加減과 修正은 있었다. 처더라도 35字母體系編과 37字母體系編은

字素의 35字母와 37字母의 차이를 제외하면 그 내용은 꼭 같은 것이다.

## V. 두 책의 完成年代와 作者

金允經은 그의 朝鮮文字及語學史에서 東文字母分解와 擬定國文字母分解를 같은 책의 異名으로 보고 그 完成年代에 대해서 다음처럼 말하였다.

그의 東文字母分解는 高宗 六年 己巳(西紀 1869)에 된 것입니다. 이 冊의 名稱에 對하여는 「擬定國文字母分解」(註 81 註 88)라 한이도 있는데, 이는 다 高宗 六年 己巳에 되었다. 하였고 「國文字母分解」(註三)라 한이도 있는데, 이는 高宗 元年 甲子에 되었다 하였습니다. 이제 筆者가 얻어 본 것은 「東文字母分解」라 하였습니다. 權惠奎氏도 高宗 甲子에 되었다고 함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元來 出版되지 못하고 寫本으로 傳한 것이므로 그 같이 異說이 생긴듯합니다.

(朝鮮文字及語學史 p.235)

윗 예문의 註는 (註 五六, 註 八九)로 되었으나 誤字이어서 (註六一, 註 八八)로 바꾸었으나 (註六一)은 잘못된 것이고 「註八一」인듯하다. 註는 다음과 같다.

註八一, 魚允迪著 正音의 故典(丙寅十一月十五日, 東亞日報所載)

註八八, 魚允迪著 東史年表

註三, 小倉進平著 朝鮮語學史

金允經은 魚允迪와 小倉進平의 말을 하고 있으나 이 두 사람은 다같이 책이름은 「擬定國文字母分解」라 하였으며 그 완성 연대는 太皇帝, 또는 李太王元年이라 하였다.

魚允迪은 그의 國文研究所 報告書의 國文源流年表에서 다음처럼 말하고 있다.

四二二年 甲子 太皇帝 元年

太皇帝 御世之初 古權堂 又號 秋琴 姜氏璋著擬定國文字母分解 未刊行

(李基文, 開化期の 國文研究, 國文研究所報告書 p.81)

그리고, 小倉進平의 增訂 朝鮮語學史에서는 다음처럼 기록하고 있다.

(五) 擬定國文字母分解 姜璋 同治八年 李太王初年 姜璋(秋琴)가 지었으나 公刊되지 못하였다. (增訂 朝鮮語學史 p.138)

위의 說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 안의 것은 筆寫本을 소개하거나 完成 年代를 말한 사람을 보인다.

東文字母分解	(金允經)	高宗六年(1869)	己巳
擬定國文字母分解	(魚允迪)	太皇帝元年	甲子
擬定國文字母分解	(小倉進平)	李太王元年	
	(權惠奎)		甲子

이상으로 보아 東文字母分解는 「高宗 六年(1869) 己巳」임이 분명하고 擬定國文字母分解는 「太皇帝 元年 甲子」로 된다. 小倉進平이 「李太王」이라고 한 것은 「太皇帝」를 고쳐 말한 것이다. 「皇帝」란 말을 붙이기 싫은 惡意에서 「太王」으로 바꾼 게 분명하다. 그러므로, 小倉進平이 본 擬定國文字母分解도 그 완성 연대 표시가 「太皇帝元年 甲子」로 되었을 것으로 보겠으며, 權惠奎의 「甲子」도 역시 「太皇帝元年 甲子」의 年代說에서 나왔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같은 筆寫本을 보았을 가능성이 크다.

「太皇帝元年」을 高宗 元年으로 보면 1864年 甲子로 된다. 따라서 擬定國文字母分解의 완성 연대를 1886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擬定國文字母分解의 완성 연대를 1864年으로 보기에 큰 문제가 있다. 한글을 「國文」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甲午更張 이후거나 바로 그즈음이다. 한글은 줄곧 「訓民正音, 正音, 諺文, 反切, 東文, 東諺」등으로 불려오다가 甲午更張 때 우리나라가 中國의 宗主權을 폐기하고 獨立國家를 선포하고 國名을 大韓帝國이라 하고 皇帝를 칭하여 獨立國家가 됨으로써 獨立國家의 文字라는 뜻에서 國文으로 일컫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擬定國文字母分解의 「國文」이라는 한글 명칭을 쓴 것은 그것이 甲午更張(1897) 이후에 완성된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더욱이 東文字母分解라 하여 東文이란 한글 명칭을 쓰고 있어 國文이란 명칭은 東文이란 명칭보다 뒤에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한다. 따라서, 擬定國文字母分解는 東文字母分解가 이루어진 1886년 보다 뒤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筆寫本에 적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太皇帝 元年」은 高宗 元年이 아닌 光武 元年으로 봐야겠다. 太皇帝란 말은 甲午更張 때 皇帝를 일컫음으로써 비로소, 高宗을 太皇帝라 일컫게 된 것이다. 光武元年 이전에, 皇帝를 일컫기전에 완성하여 연대를 적었다면 마땅히 高宗元年으로 되었을 것이다. 게다가 太皇帝 元年이란 太皇帝를 일컫은 元年으로 해석되므로 太皇

帝元年是 바로 光武 元年이 되는 것이다. 단 문제가 되는 것은 甲子란 干支이다. 筆寫本의 흘림글씨에서 「午」와 「子」는 비슷해질 수 있으므로 太皇帝元年年을 高宗 元年으로 잘못 이해하면 「午」를 「子」로 判讀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擬定國文字母分解는 원래 그 年代記가 「太皇帝 元年 甲午」이며 따라서 그 완성연대는 甲午年(1897)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보면 擬定國文字母分解는 姜瑋의 著書가 될 수 없다. 姜瑋는 1820년에 나서 1884년에 돌아갔으므로 그가 돌아간 3년 뒤에 擬定國文字母分解가 이루어진 것이 된다. 그렇다면 著書가 따로 있어야 되는데, 姜瑋의 著書로만 전하고 있음이 또한 문제이다.

東文字母分解(35字母體系)와 擬定國文字母分解(37字母體系)는 字素가 전자는 35字母이고 후자는 37字母란 차이 외에는 그 編裁와 內容이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결국 擬定國文字母分解는 東文字母分解를 그대로 두고 初聲에 「스, 츠」를 추가하고 反切表에 「자行」과 「차行」을 추가한 것이니 그런 수정으로는 새로운 著書라 할 수 없고 여전히 姜瑋의 著書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수정은 甲午更張으로 한글을 國文이라 하고 國文專用이 公式化되자 姜瑋의 子孫이나 親知가 새 시대 상황에 맞게 「東文」을 「國文」으로 고치고 전통적인 反切체계와 어긋나서 일반인에게 거부감을 주는 35字母體系를 通俗의인 37字母體系로 고치고, 새 시대가 필요로 하는, 한글체계를 정리한 新定國文의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하는 案인 擬定國文으로 세상에 내어 놓은 것으로 보인다.

擬定國文字母分解는 東文字母分解와 내용상 별차이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字母分析의 理論上으로 보면 서로 용납될 수 없는 큰 차이가 있다. 東文字母分解는 그 字母 분석이 語學的인 면에서 進步的인 분석이다.

여기에 비해서 擬定國文字母分解는 通俗의인 속용 反切 체계에 따르고자 한 것인데, 양자간에 나타나는 語學的의 見解의 현격한 차이는 서로 다른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 입증하는 것이 된다.

## Ⅵ. 結

이상에서 論及한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姜瑋의 國語學 著書의 내용을 소개하거나 그 完成年代를 언급한 것은 다음과 같다.

- (A) 金允經 東文字母分解 高宗六年 己巳  
 (B) 魚允迪 擬定國文字母分解 太皇帝元年 甲子  
 周時經 國文字母分解  
 小倉進平 擬定國文字母分解 李太王元年  
 權惠奎 甲子

(A)와 (B)로 나누어져서 (A)는 著書의 명칭이 「東文字母分解」이고 완성연대는 高宗六年 己巳이고 (B) 그 명칭이 擬定國文字母分解(略稱 國文字母分解)이고 그 완성연대는 太皇帝 元年 甲子로 判讀하였다.

金允經의 東文字母分解에는 35字母體系編과 37字母體系編이 合本되어 있는데 擬定國文字母分解는 37字母體系이므로 원래 東文字母分解는 35字母體系編 本인 것인데, 뒤에 擬定國文字母分解를 合本하여 37字母體系編으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관계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東文字母分解(35字母體系) } 合本—金允經의 「東文字母分解」  
 擬定國文字母分解(37字母體系)

金允經의 東文字母分解를 내용상으로 대응시키면 다음과 같다.

東文字母分解 (35字母體系) = 35字母體系編 } 金允經의 「東文字母分解」  
 擬定國文字母分解(37字母體系) = 37字母體系編

金允經의 東文字母分解에 合本된 擬定國文字母分解였던 37字母體系編은 그 앞의 35字母體系와 重複되는 象形說, 字母名稱, 反切表가 생략되고 있지만 周時經의 國文研究所 報告書와 小倉進平의 國語學史에 인용된 것을 보면 象形說과 字母名稱 등 원래 35字母體系編과 꼭 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東文字母分解와 擬定國文字母分解는 그 編裁나 내용이 전자는 35字素로 하고 후자는 37字素로 한 것 외에는 꼭 같았음을 알 수 있다.

그 完成年代는 東文字母分解는 高宗六年 己巳 곧 1869年이고 擬定國文字母分解는 太皇帝 元年 甲子로 전하고 있다. 太皇帝 元年是 高宗 元년이 아니고 皇帝를 일컬었던 光武 元年이고 甲子是 甲午의 「午」의 홀림글씨를 잘못 判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 完成年代는 다음과 같다.

東文字母分解 高宗六年 (1869) 己巳  
 擬定國文字母分解 太皇帝元年(1897) 甲午

擬定國文字母分解는 東文字母分解에 課題目を 東文에서 國文으로 바꾸고

내용은 다른 것은 그대로 두고 初聲에 「스, 츠」을 더하고 反切表에 「자行, 차行」을 더한 것 뿐인데, 甲午更張때 즈음하여 姜瑋의 子孫 또는 親知의 누가 時代상황에 맞게 加筆 수정하여 別書를 編한 것으로 추측된다.

參 考 文 獻

- 金允經, 朝鮮文字及語學史  
小倉進平, 增訂 朝鮮語學史  
李基文, 開化期の 國文研究, 國文研究所報告書  
魚允迪, 東史年表